

IOS를 지원하는 필기 애플리케이션의 비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201824633 김유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매우 증가했다.

단위: 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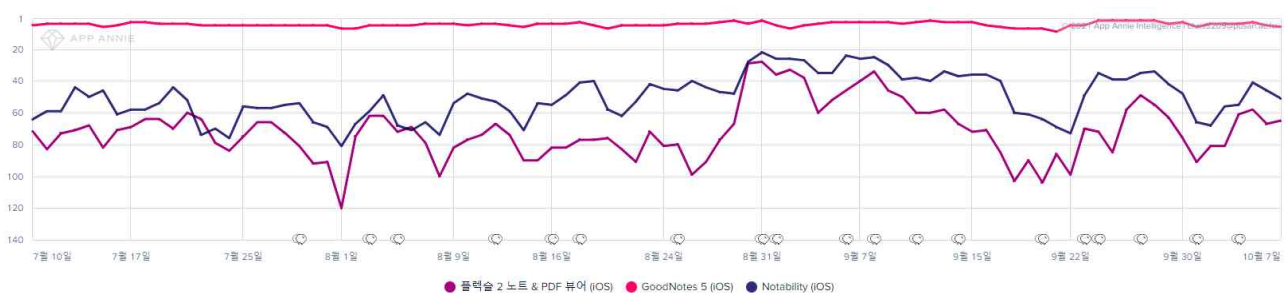
	애플	삼성	화웨이	아마존	레노버	총
출하량	1,810	940	510	490	410	5,060
성장률	49%	87%	59%	8%	61%	33%

<표. 1> 2020년 3분기 글로벌 태블릿 PC의 출하량 및 성장률(전년 동기대비)¹⁾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휴대성, 편의성을 갖춘 태블릿 PC가 필수 기기로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애플이 1,390만대로 시장점유율 약 30%대를 기록했다.

합리적인 가격의 필기가 가능한 아이패드(아이패드 6세대)가 등장한 이후, 대학생들을 필두로 ‘유행’이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의 주 용도는 수업 필기, OTT 감상 등이 있는데 특히 수업을 들을 때 유용하다. 전공 서적 대부분이 아주 무거워 그 서적들을 pdf로 볼 수 있고 ppt/pdf 등의 자료를 클릭 한 번으로 내려받아 그 자리에서 필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경쟁력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필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IOS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용량이 많은 필기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3가지이다. GoodNotes, Notability, 플렉슬 있다.



<그림. 1> 최근 90일간 전체 카테고리에서 세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매출 순위 변동

앱 애니²⁾를 통해 확인한 매출 순위는 위와 같다. 플렉슬이 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매출 순위로 비교해 봤다. GoodNotes가 가장 상위 순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040812&menuNo=2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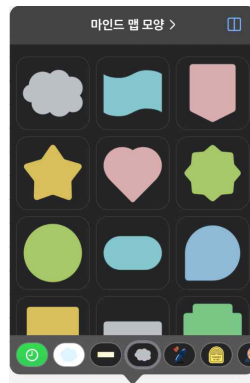
2) <https://www.appannie.com/>

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대해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기능 \ 애플리케이션 명	GoodNotes	Notability	플렉슬
가격	9,900	11,000	무료 (부분 유료 19,000)
녹음	X	O	X
화면 확대 필기	O	O	X
도형 예쁘게 그리기	O	O	O
손글씨의 텍스트화	O	O(유료)	X
그래픽 기능	O	X	X
제스처 모드	X	X	O
두 페이지 한 번에 보기	X	X	O

<표. 2> 필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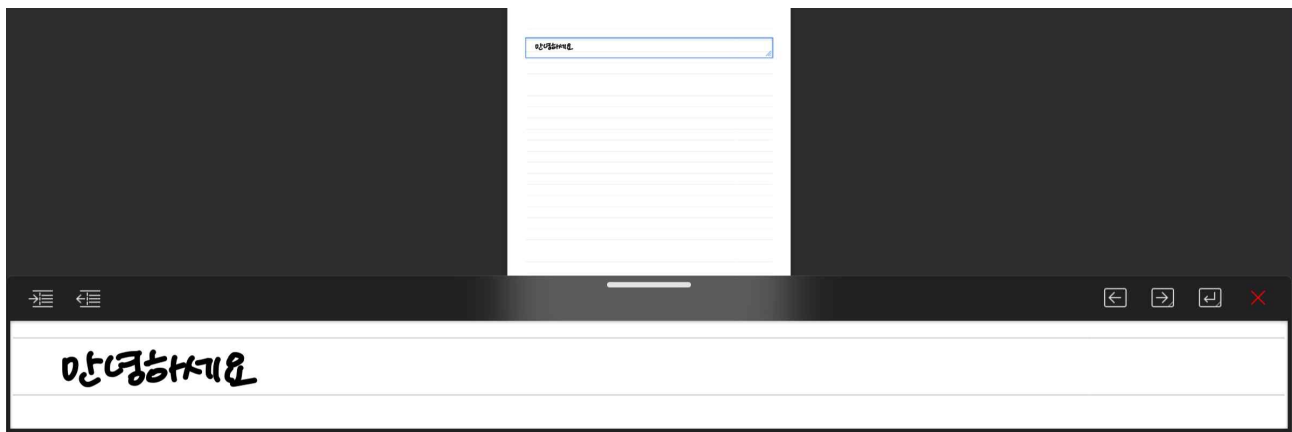
GoodNotes의 경우 가장 무난한 필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 대부분을 지원하며 가격도 Flexcil이 부분 무료인 점을 제외하면 가장 저렴하다. 아이패드를 산다면 꼭 구매해야 할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은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GoodNotes를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필기감 등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손글씨를 텍스트로 인지해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과 그래픽 기능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의 차이점으로 경쟁력으로서 작용한다. 그래픽 기능은 아래의 이미지처럼 원하는 이미지들을 저장해두고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필기 시 포스트잇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이어리 꾸미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2> GoodNotes의 그래픽 기능

Notability의 경우, 필요한 기능 대부분을 탑재했는데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수업을 단 1번만 들을 수 있어서 녹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녹음뿐만 아니라 해당 녹음을 하던 당시에 어떤 필기를 했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과거에 일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찾는 데 한참 걸렸던 반면 노타빌리티를 이용한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자해 찾을 수 있다. 이 기능 하나 때문에 노타빌리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플렉슬의 경우 국내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IOS뿐만 아니라 android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IOS의 경우 플렉슬의 파이가 크지 않으나, 갤럭시탭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렉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종이책의 경우 한꺼번에 왼쪽과 오른쪽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으나 위의 두 애플리케이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플렉슬은 해당 기능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스처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자동으로 주석 처리를 한다. 주석을 모아두는 탭이 따로 있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으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감이 좋지 않다는 평과 확대 필기가 불가능한 점 등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는 평이 있다. 또한 GoodNotes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사용자 수가 밀려 실제로 IOS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림. 3> Flexcil에는 없는 GoodNotes의 확대 필기 기능

개인적으로는 GoodNotes와 Notability를 사용하고 있다. GoodNotes는 주로 목적 없이 사용하는 용도이고 Notability는 녹음하며 강의를 듣는 용도이다. 사람들은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없어 보이면 디자인을 중요시하게 된다. 나 또한 GoodNotes의 디자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 선택했고 익숙해져서 쪽 사용하는 중이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추세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